

教師團 韓世別 제40회 정기공연

마술가게

정용식·제작 이상범·작
최동식·연출 정용식·기획

때 : 2001. 6. 7(목) ◯ 6. 9(토)
(평일 : 오후 6시30분, 토요일 : 오후 3시, 6시 30분)
장소 : 부산교육대학교 소극장(참빛관)
후원 :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한계 본성 또한 변하지 않는다.

「오
마사
의
표」



연출 최동식

원점

밤사이 한바탕 두 도둑의 소용돌이가 지나가지만 다음날 아침 옷값에 0만 하나 붙이면 '마술가게'의 세상은 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돈이 많은 곳, 금은방, 은행, 병원, 도박장, 골프장 마네킨이 외쳐되던 그곳에 우리의 꿈이 있을까? 분배의 정의와 우리사회의 도덕과 양심 도둑들에게 외쳐되던 그 소리에 가슴을 열고 동의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우리의 삶이란 늘 똑같은 자리에 머물고 흐르는 시간도 같이 멈추고 있었다. 복제 인간, 광우병, 첨단 레이저 무기, 인터넷 등이 시대의 특별한 것은 어쩌면 전기나 비행기가 최초로 우

리 앞에 선을 보일 때나 인간이 달 착륙을 하던 1969년의 충격과 비교하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너무나 편리한 문명의 이기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변한다는 것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 가는 것은 아닐까?

사랑, 우정, 땀, 눈물, 믿음 등 우리 삶에 던져진 불변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미래와 행복을 보장받고 개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변한 것은 없고 특별히 변할 것도 없고 그냥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 앞에 있을 뿐이며 각자 자신의 삶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고민하여 무언가의 한방을 노리며 웃고 만족하고 실망하며 울다가 자신을 돌아보고 주어진 앞길을 열심히 걸어갈 뿐인 것이다.

매년 크리스마스의 징글벨 소리는 듣는 사람의 정서를 다양하게 정지시킨다. 1년을 정리하는 반복적인 징글벨 소리 그 소리를 즐겁게 맞이하고 싶은 도둑「가」의 마음이 악하고 추하게 보이지 않도록 첫 출발을 잡았다. 도둑「가」의 시대와 「나」의 시대는 오늘밤이라는 같은 시간대에 마술가게라는 같은 공간에서 만난다. 20년 간의 차이를 이룬 삶이 서로의 공감대를 이루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마네킨은 냉정하게 도둑들을 법의 질서와 도덕의 양심이라는 칼로 단죄한다.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키던 그들도 세상의 룰을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선과 가면의 옷, 부와 명예와 권력의 옷, 껍데기에 불과한 그 옷들을 그들은 과감히 던져 버리고 조롱하고 비웃던 마네킨들과도 하나된다. 도둑들은 그들의 룰을 지키며 조용히 마술가게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마술가게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빠른 장면의 전환과 극의 속도감을 붙이기 위해 노래와 춤이 일정하게 자리하고 도둑「가」와 「나」의 첫 충돌부터 모든 것을 전수 받기까지 둘이 빚어내는 불협화음과 조화가 선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난다. 도둑을 둘러싼 주변인물과의 관계나 갈등상황이 부족하여 마네킨이 도둑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 각 에피소드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였는데 도둑들은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과거사를 털어놓으며 신뢰를 받은 뒤 던지는 사회에 대한 감정의 폭발은 인간적인 대화로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신나게 웃음을 유발시킬 것이다.

내년이면 주용욱 선생님이 연기생활 30년이 된다. 긍지 높은 교사임을 자부하며 부산연극의 기수이고자 시작한 첫출발이 우리 극단의 역사가 된다. 늘 제일 먼저 연습장에 들어서시는 모습,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극단 첫 연출을 맡은 후배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지도와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한상한 선생님, 극단의 중심에서 온갖 힘든 일을 처리해 주신 정용식 선생님, 흔들리지 않게 극단을 지켜주시는 이충섭 교수님, 극단 일에 몸을 아끼지 않고 물심양면을 도와주시는 심상교 교수님, 이번 공연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준 모든 극단 식구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작품은 제18회 전국연극제에 극단 가람에 의해 초연된 후, 작년 박광정의 연출로 재차 공연되어 세인의 관심을 얻게되었다. 작가 이상범은 이외에도 몽유, 아멘 아멘 아멘 등 현실을 풍자한 일련의 희곡을 선보이고 있다. 제목 '마술가게'는 고급 의상실의 상호로 여기의 마네킨들은 밤이 되면 사람처럼 행동하고 느끼며 낮 동안의 일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마술'이란 이 극이 사실주의적인 희곡이라기보다 동화적이고 우화적인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대 또한 대형거울이 있는 의상실 내부로 한정되어 마네킨과 사람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 동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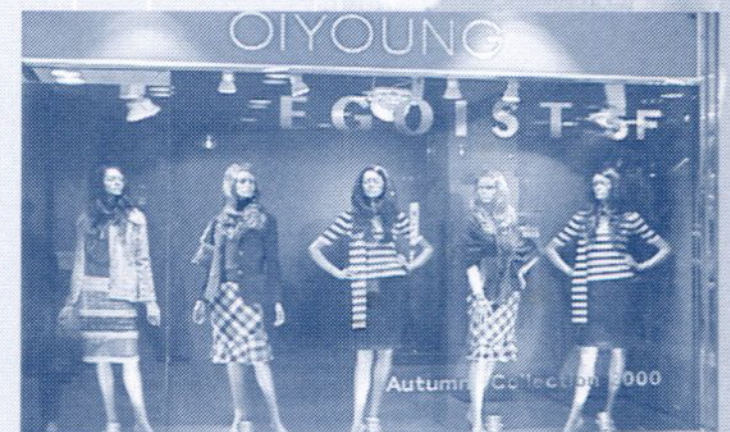
연극은 의상실에 도둑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고급 의상실이 문을 닫고 퇴근한 야심한 시각에 마네킨들은 낮 동안 자신에게 있던 일을 가지고 수다를 떠난다. 비싼 옷이 오히려 잘 팔린다는 것과 마네킨조차 그 외모에 따라 전시되는 옷의 판매실적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 때 중년의 베테랑 도둑 (나)가 들어온다. 이미 술한 경험을 해온 (나)는 마치 자기 집처럼 분위기를 맞추고 집에 전화를 하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게를 털려 한다. 이어 들어온 도둑 (가)는 초범으로 앞서 들어온 도둑 (나)와 가게의 물건과 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지만 결국 (나)에 의해 굴복하게 된다. 도둑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이렇게 도둑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현실 속에서는 모두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의 도둑들이라는 것을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풀어 놓는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교도소를 이미 경험한 (나)는 도둑 선배로써 다양한 기술들을 스타를 꿈꾸는 (가)에게 알려주고 한바탕 노래를 부른다. 결국 정당한 대우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사회에 불만을 토로하고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던 두 사람은 결국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를 느낀다. 옷을 벗어 자유를 느끼는 행위와 한바탕의 노래는 이미 언급한 사회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 현실의 답답함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인기척에 놀라 옷을 챙겨 입고 도주한 (나)는 경비로 분장한 도둑인 (다)의 손에서 (가)를 구해낸다. 경비 역시 도둑임이 전화통화로 폭로되고 도둑(다)도 의상실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줄 옷을 훔쳐 도망친다. 결국 남아 있는 마네킨들은 유리 밖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고 생각을 고쳐 다시 거기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고치는 것으로 연극은 끝난다.

의상실 내의 마네킨과 유리 밖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밖의 현실도 도둑이 도둑을 등치는 세계로 묘사함으로써 극은 풍자적이고 희극적인 양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회를 비판한다. 도둑이 도둑을 오인하고 벌어지는 행위나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들떠 행동하는 태도에서 연극적인 재미를 듬뿍 맛볼 수 있다. 종반에 벌어지는 경비로 분한 도둑의 등장 역시 극적인 반전을 제공하여 극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비판만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나름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 풍자적으로 고발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변혁에 대한 가능성이나 미래에 대한 의지가 없이 현실에 대한 폭로와 풍자는 자칫 유희적으로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네킨들의 유리 진열장 속으로의 안주는 그래서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무대도 너무 단순하게 의상실 내로만 국한하여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는데 아쉬움을 남긴다. 다양한 공간 설정으로 (가)와 (나)의 세계를 조명을 통해 그려내면 보다 효과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사회정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세계를 그려내지 않고 단순히 현실에 대한 풍자에 머물고 만 한계가 아쉽다.

따라서 이번 공연을 계기로 다양한 형식적 실험과 기법을 동원한 방법으로 공연을 이어가는 한 새별 극단의 역량과 정신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마술가게 주머

아파트 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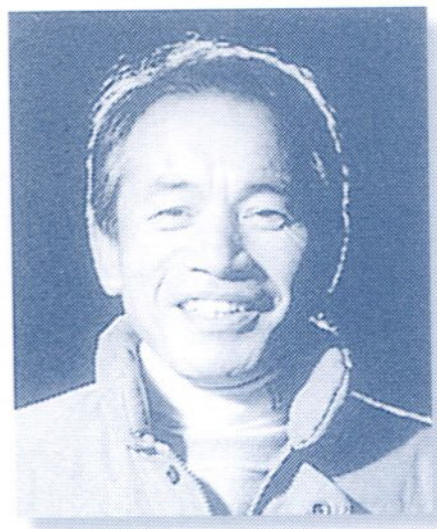


마술가게 빛낸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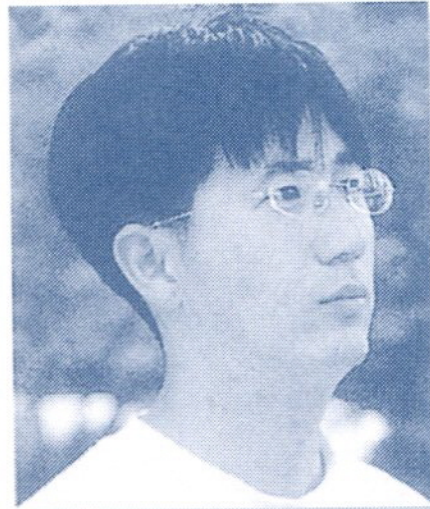
Cast



가 김민수



나 주용욱



다 정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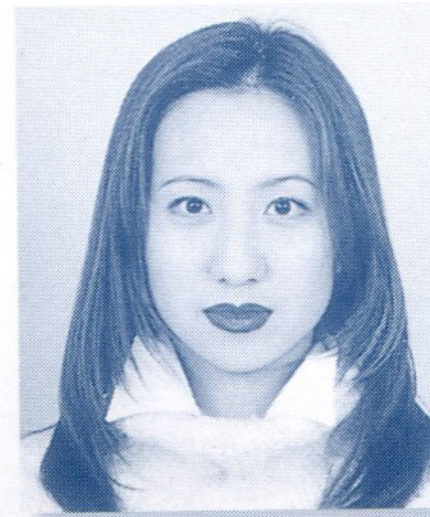
마네킨1 김민자



마네킨2 박경미



마네킨3 전은경



마네킨4 유경희

Dress Shop

정용식
제작
·
이상범
작
·
최동식
연출
·
정용식
기획



DRESS SHOP

마술가게 빛낸 이들

Staff



무대감독 김병락



무대미술 한상한



무대미술 이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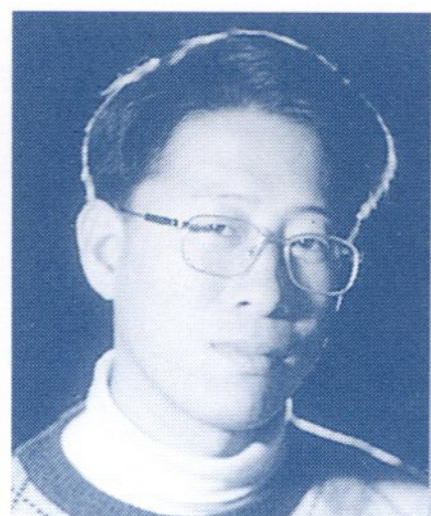
조명 김실곤



조명 김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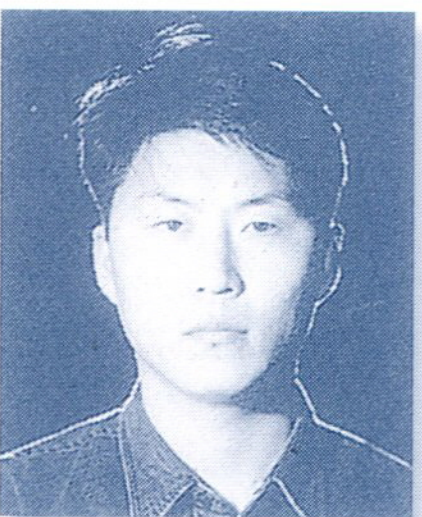
조명 김성진



조명 김윤종



습향 우혜선



습향 곽상국



의상 이희녕



의상 김지순



소품 임경란



소품 김귀순



소품 안윤경



마술가게 빛낸 이들

Staff



섭외 이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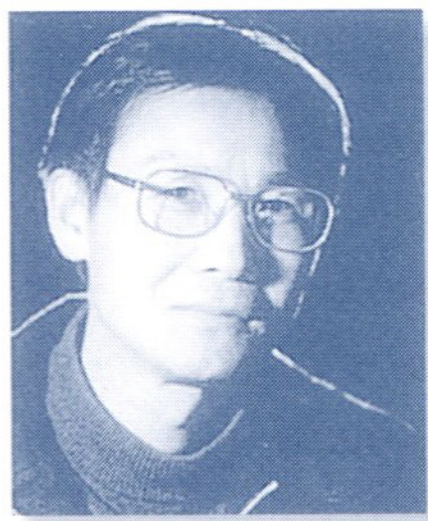
소도구 정남식



소도구 고영빈



소도구 이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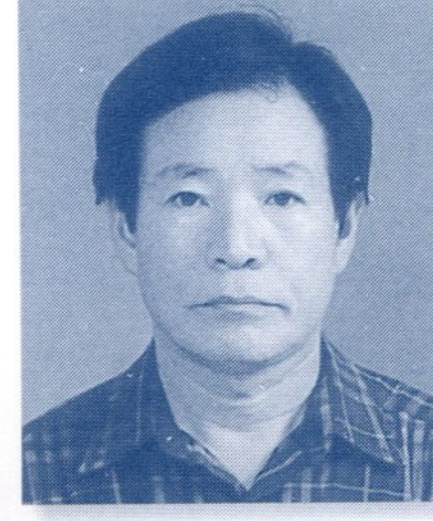
대도구 황용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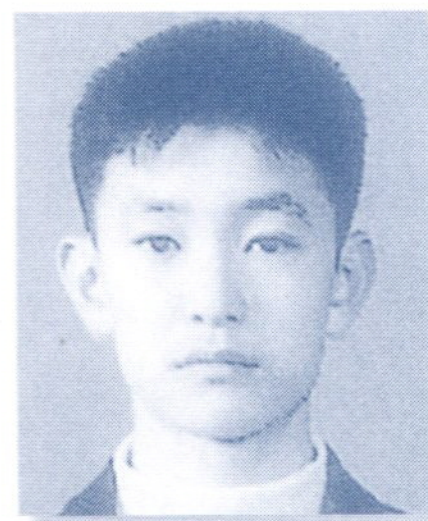
대도구 송영철



작곡 우창수



무대디자인 이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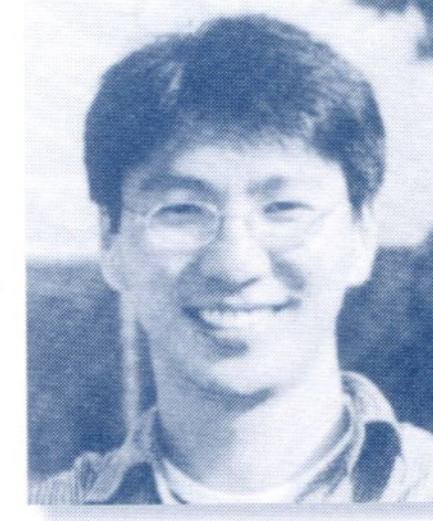
팸플렛디자인 이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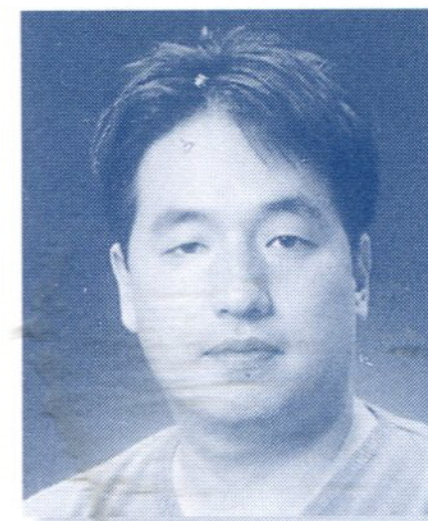
산무 김정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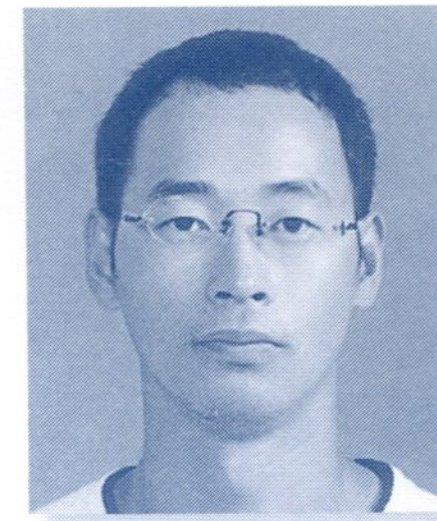
무대장치 김병철



무대장치 최영용



무대장치 김형준



무대장치 이동열



기혹 김지연

